

# 2023학년도 GTU 글로벌 리더스 ( 더글로리 ) 리더스 활동 [1학차] 보고서



운영정보	활동일시	2023년 5월 24일 11:30~13:30	활동장소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사라관 314호
	참석자	문지영(초등컴퓨터교육전공) 박승아(초등컴퓨터교육전공)	활동방법	문헌연구 및 토의
	성명 (전공)	박우정(초등컴퓨터교육전공)	활동도구	컴퓨터, 논문
			작성자	박승아

활동주제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 다문화교육의 개선방안 탐구하기
활동과정	문헌 연구 및 토의
학생 활동	<p>● 문헌 연구 및 토의 내용</p> <p>최근 들어 한국에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가 존재하면서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알아보고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탐색해보자 한다.</p>
활동내용	<p>01 다문화주의</p> <p>1) 동화주의 모델</p> <p>동화주의 모델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기존의 문화적 요소와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주 국가의 통합을 위해 주류문화를 따르는 모델을 말한다. 동화주의 모델은 소수집단과 주류사회 사이에서 인종이나 민족으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고 사회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p> <p>2) 다문화주의 모델</p> <p>다문화주의 모델은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주 국가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과 정착민 간의 통합성과 단일성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류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p> <p>3) 차별적 배제 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p> <p>차별적 배제 모델은 배타적인 이주정책과 '혈통주의'에 기반한 문화적 '단일성'을 추구하는 다문화주의 모델을 의미한다. 차별적 배제 모델은 국민 형성 조건으로 출생 지역과 인종적 특성을 강조하며, 단일문화주의와 순혈주의의 특징을 갖는다.</p>

## 02 다문화 교육

### 1) 다문화 교육의 정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시작은 미국에서 흑백 차별과 남녀차별에 대한 경각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도입된 "반(反) 편견 교육"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를 공문서에 처음 등장시켰다. 그외에 외국인 이주민 자녀의 학교교육 적응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또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여 '타문화와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지니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공통적으로 종합해 보았을 때 다문화 교육의 가치를 '평등'으로 정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다문화 교육의 목표

J.A.Banks는 다문화교육을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경험하도록 돋는 과정이자 학교개혁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교육적 불평등 해소와 다양성을 인식, 그리고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는 그들과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고, 소수의 사회구성원에게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문화적 관점이 반영된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한다.

### 3) 다문화 교육의 과정

다문화교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문화 및 민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교차문화적 으로 유능한 능력을 기르는 것, 아동의 학습능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 차별을 예방하고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 다문화적 관점이 반영된 교육과정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의 활동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다문화교육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 전체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의 효과를 논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돌아켜 봤을 때, 이민자들의 구성 비율이 높아지고 그들의 밸런스가 커짐에 따라 한국 역시 곧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 01 프랑스의 동화주의 모델에서의 다문화교육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외국인 이주민의 자국민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공화주의에 바탕을 두고 프랑스 정부가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프랑스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프랑스에서는 특수한 인종이나 민족으로 정의되는 집단에게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하거나 그들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공공정책을 존재하지 않는다. 소수 이민자를 인정하는 분리 의식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야기할 수 있고, 동질적인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 학교 교육 : 프랑스의 학교들은 특별학급을 개설하고 외국인 이주민 가정 자녀가 프랑스어를 최대한 빨리 습득한 후 일반학급의 정규과정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프랑스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이주민 자녀들은 학습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학교와 특별학급 배정이 이루어진다. 최대 1년 정도의 적응기간이 끝나면 특별학급 학생들은 정규학급에 통합되는데 이후에 프랑스어나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별학급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 교사 교육 :** 프랑스의 다문화교육 핵심은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라는 데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이들에게 불평등, 불의, 인종주의, 편견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 일상생활에서의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데에, 교사의 인식변화와 방법론적인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02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모델에서의 다문화교육

캐나다의 다문화교육에는 다문화정책인 상호존중, 다양성, 평등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국가가 형성 목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캐나다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구성원이 모여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화합하여 하나의 캐나다를 구성하는 형태의 다문화주의 모델을 주창한다.

캐나다에서는 소수민족들이 주류의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류 집단도 소수민족들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존중, 평등, 다양성의 가치 아래 청조적이고 응집력 있는 캐나다를 만들기 위해 여러 민족 집단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샐러드 그릇 다문화주의의 특징이 캐나다 다문화교육에 녹아있다.

**1) 연방 및 주 정부의 다문화교육 :** LINC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이민자 정착 및 통합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언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의 사회와 문화를 소개하는 수업으로 구성된다. ISAP은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오리엔테이션, 통번역 서비스, 상담 및 취업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인종관계에 따른 구조적인 불평등이 존재함을 인식하여 모든 정부기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캐나다의 다문화 현실을 감안하여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매년 이런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 수준의 반인종차별 교육은 모든 캐나다 국민들이 인종 또는 민족적 배경에 관계없이 사회에 잘 통합되어 사회와 경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교사 교육 :** 1993년 온타리오 주의 토론토에서는 유색인종 교사 채용, 교사훈련 및 연수, 리더십, 직원 교육, 인종 관련 괴롭힘 방지, ESL 등의 언어교육, 학교-사회 네트워크 형성 등 다문화적 평등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론토 교육청의 많은 교사들이 평등 관련 연수를 받았고, 유색인종 지역 사회가 토론토 시의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사채용에 많은 유색인종 교사가 선발되었다.

한국에 외국인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한 공동체 의식을 보유하고 있어 타 민족과 문화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프랑스와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다문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의해 보았다.

## 01 한국 다문화 교육 현황

한국은 첫째, 소수자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 온 이민자들에게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소수자 정체성 교육이다. 한국은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소수자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언어에 비중을 두고 있어 문화, 종교, 역사 등과 같이 조금 더 심도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배경 중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셋째, 상호이해증진교육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다문화 이해 콘텐츠를 보급

하고 다문화 생활 체험 수기를 공모하여 수기집을 배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지원들이 실제적인 다문화적 소양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 02 현행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

### 1) 정책 및 제도

먼저, 특정 집단에 교육이 집중되거나 그 대상이 잘못 될 경우, 하나의 다문화사회 전체적인 통합에 어려움이 생기고 진정한 다문화사회 형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초기정착뿐만 아니라 진로 및 직업교육, 경제 교육, 한국의 교육제도 등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 부처들에 의해 수행되는 유사하고 중복적인 정체과 제도로 인해 지원 효율성이 저하된다.

### 2) 학교 현장 적용의 어려움

첫째,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가 낮다. 둘째,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관련 교육내용 준비가 미흡하다.

## 03 개선방안

### 1)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먼저, 한국은 다문화관련 사업을 추지하는 정부 부처는 많으나 프랑스나 캐나다처럼 이민 및 다문화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부처가 없다. 전문 부처를 설립하여 일원화되고 장기적인 다문화정책 비전과 구체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프랑스의 카스나브,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 정보센터처럼 다문화 원스톱 지원체계를 시·군·구 교육청이나 시청, 구청,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지역단위거점센터에 구축하여 외국인 이주민 또는 그의 자녀가 한국 입국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사와 예비교사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교육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2) 다문화교육의 실천방법

첫째,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잘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의 맞추형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기초학력이 낮은 경우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한국어능력 부족 때문인지 경제적 이유인지 등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셋째,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교육을 하며 소수자 정체성 교육도 같이 실시한다. 넷째, 다수 한국인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상호이해증진교육을 실시한다.

## ● 활동 후 느낀점

### - 문지영

일반적으로 '다문화'를 단지 섞여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민족과 여러 문화의 사회적 차원에서 공존하고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문화'라는 개념이 소수 문화를 인정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유형이 바뀌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다문화주의 모델을 분석해보면서 '동화주의 모델'이 과연 소수 이민자들의 문화, 민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동화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다문화의 의미를 지니고 사회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문화'의 접근 방향이 불가피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포용

할 수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거나 ‘동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작년에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수업을 수강하면서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실행’을 주제로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해본 적이 있다.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여 여러 문화의 특징과 요소를 제시하여 상호존중, 수용의 태도를 기르는 교육부터 교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도하여 점점 확장되는 개념, 이슈, 주제, 현안, 문제를 조망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 모형까지 알아보았다.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 목표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의 필요성을 느꼈다.

#### - 박승아

한국은 단일민족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다양한 이주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외국인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점점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제도들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실 근복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정책 방향들이 중복적인 것이 많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들도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가 낮으며 다수이해교육보다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과 다문화교육에만 중점을 두어 상호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민자 및 다문화 관련 정부부처를 형성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컨트로 타워를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다문화 정책을 다양한 부처에서 제시하다 보니 일관성이 없으며 장기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다문화 교육 정책, 제도, 실행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가장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다면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미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는 더 체계적인 다문화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

#### - 박우정

다문화교육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기조를 보였던 프랑스와 캐나다의 다문화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신규 이민자를 위한 언어정책, 사회 적응 훈련, 차별금지 교육 등 국가 단위에서 갖추고 있는 세부적인 정책은 두 국가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두 나라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의 성과 차이는 분명한데, 그 이유는 두 국가가 벌어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긴 역사를 보유한 유럽 자유주의의 종주국이다. 민족적 자부심과 더불어 왕정의 잔재인 사회적인 계급도 유지되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호령했으며 당시 유입된 이민자들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가 다문화교육에서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한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프랑스는 훼손되거나 변화할 수 없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민자는 이에 순응해야 한다. 이민자의 정체성이 프랑스의 정체성을 감히 건드리거나 흐릴 수 없다. 반면 캐나다는 이민자로 발전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자에 포용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캐나다 고유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은 사회 전체에서 다문화를 수용하는 데 극히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이민자를 받는 모든 나라가 그 정도는 한다. 다문화가 한국 사회에 큰 여파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족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민자에게 어떤 태도를 견지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그리고 다문화교육 정책의 향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기활동 계획	다문화 교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해 탐구하기	활동과제	관련 논문 읽어오기
---------	-------------------------	------	------------

활동 사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위와 같이 2023 GTU 글로벌 리더스 1회차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5월 29일

그룹 더글로리 작성자 박승아

## 제주대학교 글로벌교원양성거점대학(GTU) 단장 귀하